

동신고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 제패

대통령기...경기 다산고 2-0 완파 우승
지난해 전국체전 은메달 주역들 성장
9월 해남 중고대회도 좋은 성적 기대

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동신고는 전남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동신고는 경기 다산고를 2-0으로 누르고 우승기를 차지했다.
제1경기 복식에 나선 동신고 안하운(3년)·조성준(2년)은 다산고 김계빈·김두현을 4-0으로 제압하고 승리를 따냈다. 이어 제2경기 단식에 나선 정정일(3년)이 다산고 황경호를 4-1로 일축했다.
동신고는 최강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오는 17일

회장기대회, 9월1일 해남에서 열리는 중고대회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축 선수들이 지난해 중고정구연맹회장기와 추계중고정구연맹전 우승을 휩쓸었고,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다. 당시 1,2학년이었던 이들은 올해 2,3학년이 됐다.
손영호 동신고 감독은 "전국체전이 취소됐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주축 선수들이 탄탄한 전력을 갖췄기 때문에 올 시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58회 대통령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동신고 소프트볼팀. 왼쪽부터 문정인, 정정일, 조성준, 안하운, 주형찬, 문승상, 강주한.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양연수 시즌 첫 스쿼시 대회 우승

첫 세트 내줬지만 3세트 내리 따내
대구시청 안은찬에 3-1로 역전승



전남스쿼시연맹 최창원 회장(왼쪽부터), 양연수 선수, 전남도청 스쿼시팀 김영재 지도자. <전남도체육회 제공>

스쿼시 국가대표 양연수(전남도청)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했다.
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양연수는 최근 경북 김천 스쿼시경기장에서 끝난 제16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선수권대회 여일반 결승에서 안은찬(대구시청)을 3-1로 꺾고 금메달을 땀다.
애초 지난 3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됐었고, 7월이 돼서야 일반부가 출전한 올 시즌 첫 대회로 개막했다.
양연수는 첫 경기인 16강과 8강전에서 김하은(경북스쿼시연맹)과 김기담(대구시청)을 각각 3-0으로 완파, 4강에 진출했다.
양연수는 준결승에서 이지현(대전시청)을 3-1(11-7, 11-4, 9-11, 11-9)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양연수는 안은찬(대구시청)에게 역전승을 거뒀다. 첫 세트를 10-12로 내줬으나 3세트를 내리 따내 3-1(10-12, 11-7, 11-5, 11-8)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김영재 전남도청 스쿼시팀 지도자는 "양연수 선

수가 고질적인 허리부상을 안고 있는데, 전남스포츠클럽센터의 컨디셔닝 및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 기간 중 부상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 것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희찬 "공격 포지션 어디든 맡겨라"

라이프치히 팬들과 첫 인사...멀티플레이어 재능 강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히에 입단한 황희찬이 4일(현지시간)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다"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사진은 라이프치히가 공개한 황희찬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독일프로축구 RB라이프치히에 새 등지를 든 황희찬(24)이 '황소'처럼 당찬 입단 소감을 내놨다.
새 팀에서 막 훈련을 시작한 황희찬은 4일(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눴다.
황희찬은 라이프치히에서의 포지션을 묻는 말에 강점인 '멀티플레이어' 재능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매우 강력하고 골 넣기를 좋아하는 공격수"라며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즐긴다"고 말했다.
이어 "10번(플레이메이커), 측면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등 공격진의 어떤 역할이건 나는 편안하게 해낼 수 있다"면서 "어떤 역할을 주든 내 플레이로 팀의 전진을 이끄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강조했다.
황희찬은 출전하지 못하는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팀과 동행해 새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미뤄진 챔피언스리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참가 팀들이 한데 모여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이프치히의 첫 관문은 오는 13일 열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8강전이다.
라이프치히는 황희찬을 영입하기 전에 이 대회 엔트리를 확정해 둔 상태였다.
황희찬은 "개인적 목표"를 묻는 말에 "개인적 목표는 뒤로 제쳐뒀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직 팀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집중하겠다"면서 "나는 불행하게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뭘 수는 없지만, 팀과 함께 리스본으로 가겠다. 동료들이 리스본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희찬은 내달 11~14일 사이 예정된 뉘른베르크와의 2020-2021시즌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부터 라이프치히 선수로 뭍 예정이다. 분데스리가 새 시즌은 9월 18일 개막한다. /연합뉴스

전인지 부활샷 지켜보라

한국선수들 유독 강한 LPGA 마라톤 클래식 6일 개막



전인지

양희영·박희영·신지은 등 출전
대니엘 강 2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70만달러)이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6555야드)에서 개막한다.
마라톤 클래식은 LPGA 투어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다.
LPGA 투어는 2월 호주오픈 이후 5개월간 열리지 못했고 7월 말 개막한 드라이브 챔피언십으로 2020시즌 일정을 재개했다.
마라톤 클래식은 특히 한국 선수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인 대회다.
1998년 박세리(43)가 우승한 이후 지난해까지 대회가 열리지 않은 2011년을 제외한 21년간 한국 국적의 선수가 우승한 횟수가 절반이 넘는 12번이나 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 대회에서 한국 선수 우승은 6번에 이른다. 교포 선수인 리디아 고

(뉴질랜드)의 2014년, 2016년 우승까지 더하면 그 횟수는 더 올라간다.
다만 올해 대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전하는 한국 선수의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
양희영(31)과 전인지(26), 박희영(33), 신지은(28) 등이 이번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김세영(27)은 나오지 않는다.
시즌 재개 후 첫 대회였던 드라이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교포 선수 대니엘 강(미국)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대니엘 강은 상금 순위 4위, 올해의 선수 포인트 2위 등을 달리고 있어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주요 부문 1위도 될 수 있다.
넬리 코르다, 렉시 톱슨(이상 미국), 이민지(호주)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LPGA 투어는 이 대회가 끝나면 무대를 영국으로 옮겨 13일부터 레이디스 스토클랜드오픈, 20일부터는 AIG 여자오픈을 치른다.
지난해까지 브리티시 여자오픈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AIG 여자오픈은 이번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2관	강철비2: 정상회담
3관	반도
4관	강철비2: 정상회담
5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6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9관	강철비2: 정상회담, 블랙아웃: 인베이션 어스
7관 씨네커를	반도, 빅사크3: 엘리먼트스터 대소동, 애니멀 크래커
8관 씨네커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문화산책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